

# “문자 요약하고 일정 관리까지” ‘에이닷’으로 생활 편리 더한다

SKT, 고객센터 연결 편의 높여  
‘에이닷 노트’ 정식 서비스 전환  
유료화보다 시장 선점 속도 조절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을 통신 기반 생활형 AI 에이전트로 확장하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이용 고객들은 AI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에이닷’을 이일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센터·메시지·일정 관리 등에서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에이전트콜’을 통해 고객 센터 연결 편의를 한층 높였다. 이용자가 ARS 안내를 듣고 번호를 기억해 상담원 연결까지 기다리는 기존 구조에서 상담원 연결 대기가 길면 AI 에이전트가 대신 기다렸다가 연결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메시지 관리도 스팸·피싱 의심 문자에서 전 영역으로 넓혀 문자 핵심 내용 요약·일정 연동 등으로 확대했다. 예약 문자를 받으면 일정, 위치, 링크가 에이닷 앱 일정에 기록된다.

이 밖에 쿠폰 문자는 유효기간과 쿠폰 번호를 따로 저장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새롭게 추가된 ‘할일 탭’은 이용자가 등록한 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준다.

최근에는 AI 회의록 서비스 에이닷 노트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베타 출시 이후 약 1년 만이다.



SK텔레콤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에이닷’의 기능을 향상시켜 AI 에이전트로 적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업데이트된 ‘에이닷’의 사용 모습. /SK텔레콤

음성을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이 서비스는 베타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사용자가 30만명에 달했다.

이는 에이닷을 AI 비서에서 생활형 AI 에이전트로 확장해 생활 전반에서 고객과 접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2022년 캐릭터와 대화하는 서비스로 에이닷을 출시하고 이듬해 개인화 전략을 내세워 AI 비서 앱으로 고도화해왔다. 지난해에는 에이닷 노트 등 베타 서비스를 선보여 업무 영역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한국어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A.X 4.0과 챗GPT-5 등을 추가해 워크플로우 기능을 강화했다.

이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장이 유리한 이유로는 고객과 전화·문자 등 기본 통신 접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의 AI 영역에서 단일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네이버의 ‘클로버노트’와 달리 에이닷 노트는 회의 내용을 통화문자를 통해 얻는 일정 정보와 연계하기가

수월하다.

에이닷 업데이트는 SK텔레콤이 유료 전환보다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 조절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지난해 9월부터 에이닷 노트 등을 부분 유료화하면서 거론된 유료 모델 전환 계획은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이는 고객들의 반복적인 경험과 높은 만족도가 유료로 지불 의사로 이어지는 만큼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에이닷 노트를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 이후에도 무료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에이닷 유료화를 두고 정석근 CTO는 올해 초 스페인에서 열린 ‘MWC 26’에서 “현재 보유한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유료 수준의 성능까지 낼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선 기자

mso@metroseoul.co.kr



metro

# LTE·5G 통합 요금제 실시 KT, 연령별 데이터 혜택 확대

요금제 100여종서 18종으로 축소  
데이터 소진後 웹서핑·메신저 가능  
청년층에 데이터 2배 제공 등 혜택

KT가 1일 5G·LTE를 통합한 요금제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날부터 기존 5G 및 LTE 요금제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이번에 개편한 통합요금제는 기존 요금제 100여종에서 18종으로 줄이고 연령별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덤’ 서비스를 도입했다. 데이터를 전부 소진하고도 간단한 웹서핑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적용했다.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초이스·베이직으로 나뉜다. 초이스 요금제는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유 데이터를 확대한 특이점이다. 예를 들면 초이스 110·90 요금제는 공유 데이터가 각각 80·60GB 수준으로,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초이스 130 요금제는 최대 2회선까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OTT, 폰케어, 디바이스 할인 등 혜택을 선택하는 등 이용 패턴에 맞춰 요금을 설계할 수 있다. 초이스 더블 요금제는 디즈니 플러스 스탠다드, 단말 보험 할인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번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데이터 안심 옵션(QoS)으로,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구분한 베이직 요금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전 구간 QoS를 적용하고 공유 데이터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데이터가 소진된 이후에도 사용이 중단되는 불편을 줄이고 웹서핑,



KT가 5G·LTE를 통합한 요금제를 새롭게 출시했다.

메신저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있다. 베이직 110GB 요금제는 최대 5Mbps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베이직 10GB 요금제 이하는 400Kbps 속도를 제공한다.

연령별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베이직 30GB 요금제를 이용하는 20대 고객에는 Y덤을 적용해 데이터 제공량이 60GB로 늘어난다. 월 10GB 요금제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의 경우 최대 15GB까지 확대된다.

연령별 덤 혜택은 청년층은 데이터 2배를 제공하는 Y덤, 어린이는 스쿨덤, 시니어 고객은 65 플러스 덤, 75 플러스 덤 등이다.

군 장병에게는 복무 기간 Y덤 혜택과 매일 2GB 데이터를 제공한다. 단 추가 데이터 제공은 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가능하다.

KT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고객 참여형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메가커피, 신세계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 NC AI, 글로벌 3D 생성 AI 시장 공략

‘바르코 3D 2.0’ 공개  
실제 제작 공정 전반에 적용

NC AI가 맞춤형 제작 공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바르코 3D 2.0’을 공개하며 글로벌 3D 생성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NC AI는 3D 생성 AI 서비스 ‘바르코(VARCO) 3D 2.0’을 1일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능을 넘어 실제 제작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기능인 ‘커스텀 워크플로’를 통해 사용자는 이미지 생성, 3D 생성, 텍스처 변환, 후처리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제작 공정을 설계하고 저장·재사

용할 수 있다. 팀원 간 워크플로 공유도 가능해 협업 효율도 높였다.

생성 성능도 개선됐다. 입력 이미지의 형상과 비례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최대 4K 텍스처를 지원해 세부 디테일과 재질 표현력을 높였다. 회사 측은 형상 유사도 평가 지표인 ‘유니3D’ 등 주요 벤치마크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3D 생성 AI 서비스와 비교해 원본 형상 유지력과 텍스처 품질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NC AI는 향후 AI UV 언랩 기능과 ‘바르코 3D 2.0 울트라’ 모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 등 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



NC AI가 최신 SOTA 모델 기반 바르코 3D 플랫폼 업그레이드 했다. /NC AI

이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바르코 3D 2.0은 실무자들의 3D 콘텐츠 제작 파이프라인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며 “고품질 3D 애셋 제작의 표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따능스쿨, AI 그림강의 수강생 2000명 돌파

생성형 AI 플랫폼 ‘따능AI’ 활용

AI(인공지능) 예술 교육기업 따능스쿨은 자사 AI 그림 강의의 누적 수강생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강의는 한국어 프롬프트를 활용해 그림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술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인과 주부, 시니어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그림 제작 기초를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교육에는 따능스쿨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 ‘따능AI’가 활용된다. 따능AI

는 한국어 입력만으로 그림과 영상, 음악, 효과음, 음성 등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SW) 품질 인증인 GS(굿 소프트웨어) 1등급을 획득했다.

따능스쿨은 2023년 AI 예술 교육을 시작해 입문 과정부터 창작, 자격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능스쿨 관계자는 “AI를 처음 접하는 이용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 SKB “종편부터 지상파 3사 콘텐츠까지”

‘B티비 플러스 맥스’ 구독상품 선봬

SK브로드밴드는 월 정액 구독상품 ‘B티비 플러스 맥스’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출시 배경은 최근 다수의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를 구독하는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높아진 데 있다.

‘B티비 플러스 맥스’는 기존 상품인 ‘B티비 플러스’에 지상파 3사 콘텐츠를 추가한 특징이다. 종편 4사와 함께 케

이블, 영화, 키즈, 애니, 다큐 등 약 30만편 이상의 국내외 콘텐츠가 함께 제공된다. 이에 따라 실시간 채널 255개를 한번에 시청할 수 있다.

고객 편의성도 높였다. TV 전원을 켜면 전용 홈으로 즉시 연결돼 추가 결제 없이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대 4대의 모바일 B티비 앱으로도 시청 가능하다.

SK텔레콤 이동전화 등 결합 상품을 3년 약정 조건으로 구독하면 월 2만2000원

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구독 상품보다 최대 78%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구독 상품 출시를 통해 이용자들은 여러 플랫폼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구독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연다.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100만원 기프트카드, 롯데호텔 숙박권,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투썸플레이스 커피 쿠폰 등을 증정한다.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다. 한편, VOD 월정액 구독상품 ‘B티비 프릭스’는 2024년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70% 이상 증가했으며, 시청 시간도 56% 이상 늘었다. /조민선 기자

## 카카오, 디지털 플랫폼 일상혁신 연구지원

선정 과제에 2000만원 연구비

카카오는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에 미치는 영향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6 디지털 플랫폼의 일상혁신 연구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이용자의 일상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창작자와 소상공인, 기업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성장과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연구 대상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그룹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다. 경영·경제·사회·심리·교육·디자인·공학 등 분야 제한 없이 연구 제안을 받으며, 선정 과제에는 각각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외 학술지에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다. 접수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연구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방법의 적절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최빛나 기자